

http://dx.doi.org/10.17703/JCCT.2018.4.1.263

JCCT 2018-2-32

공시적 관점에서 본 태권도시범 : 광복이후부터 1960년대

Taekwondo Demonstrations Seen in the Perspective of Open Demonstrations: Focusing on the period from the emancipation until the 1960's

나채만*, 이영훈**

Chae-Man Na*, Young-Hoon Lee**

요약 본 연구는 공시적 관점에서 광복이후부터 1960년대 태권도시범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규명하는데 목적 둔 문헌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복과 기간도장의 태동, 한국군 베트남전 파병, 국제태권도연맹(ITF) 창설과 같은 사회상황은 태권도시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둘째, 태권도시범은 형식면에서 연무(研武)시범형태로 각 도장에서 승급 심사나 관의 홍보 및 개인 수련기량 연마를 보여줄 때 행하는 것이었으며, 태권도 기본기술을 바탕으로 위력 손·발 격파, 단순 도약격파, 대련, 실전호신술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주요어 : 태권도, 시범, 위력격파, 형식, 내용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review intended to understand how Taekwondo demonstrations have been made from the emancipation until the 1960's in the perspective of open demonstr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aekwondo demonstrations were influenced significantly by social situations like the emancipation and emergence of gigan studios, dispatching ROK armed forces to the Vietnam War, or th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ITF). Second, in terms of forms, Taekwondo demonstrations were made as a form of demonstrating martial arts that had been improved in each of the studios when there was an examination for promotion, the studio needed publicity, or they wanted to show how individuals' skills had been cultivated. In terms of contents, with basic skills of Taekwondo as the ground, they dealt with forceful hand/foot breaking, simple jumping up and breaking, sparring, and practical self-defense martial arts, and so on.

Key words : Taekwondo, Demonstration, Force breaking, Forms, Contents

*정회원 경동대학교 체육학과 (제1저자)

**정회원 경동대학교 체육학과 (교신저자)

접수일: 2017년 12월 12일, 수정완료일: 2018년 1월 7일

게재확정일: 2018년 1월 25일

Received: December 12, 2017 / Revised: January 7, 2018

Accepted: January 25, 2018

**Corresponding Author: chaeman007@naver.com.

Dept. of Physical Education, Kyungdong University, Korea

I. 서론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로 만들기 위해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를 10대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을 위해 '17년부터 국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해 태권도를 10대 문화콘텐츠로 개발·홍보하여 문화·관광과 연계되는 융합 콘텐츠로 발전시켜 전 세계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

이러한 내용을 비춰 볼 때 태권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의 진화과정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무도에서 출발해 이제는 전 세계 208개국에서 사랑받는 무도스포츠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무도스포츠라는 단순한 가치를 뛰어넘어 한국의 역사와 철학, 언어와 생활양식이 잘 내포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상징물이자 문화상품이 되었다[2].

한류열풍은 이와 같이 태권도가 마련해 놓은 토대 위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태권도는 한류문화의 첨병으로서 이미 1950년대부터 세계인에게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려왔고, 이 과정에서 태권도시범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다면 태권도시범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본돈작,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 및 특기기술과 같은 태권도의 여러 장점들만 결부시켜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구성하여 선보임으로서 비 수련자들에게는 흥미를 유발시켜 배우고자 하는 동기유발을 시켜주며, 또 수련자들에게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태권도가 전 세계로 보급됨은 물론 올림픽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민간외교사절단으로써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태권도시범은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역사와 철학, 운동생리학 및 역학, 심리, 공연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태권도시범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역사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로는 장권(2002)의 「태권도 연무 시범의 변천과정에 대한 고찰」, 양현석(2006)의 「한국태권도시범 변천사」, 최광근(2011)의 「태권도 세계화 전개과정에서 본 태권도시범 史」, 나채만(2014)의 「광복

이후 태권도시범의 변천에 관한 고찰」, 곽애영, 최동성(2014)의 「한국 태권도시범단 프로그램의 변천과 의미」, 그리고 장권(2016)의 「세계화과정에서 나타난 태권도시범단의 발전사적 연구」 등이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태권도시범의 변천과 시범단의 발전배경과 시범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을 뿐, 태권도시범의 어느 한 시점을 대상으로 연구한 역사학적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자는 이 점에 주목하여 공식적 관점에서 태권도시범의 상태를 파악하여 그 당시 태권도시범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명확하게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태권도시범의 과거, 즉 태권도시범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발전해왔는지를 추적하는 일은 태권도시범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하는지를 구상하는데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복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시간 속에서 태권도시범의 전개과정에 따른 시대적 상황과 주요사건들은 어떠한지, 다음으로 이 시기의 태권도시범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사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태권도행정기관을 관찰한 매스미디어 자료, 그 외에도 태권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문헌, 학회지, 단행본, 대한태권도협회 정기간행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사건들이나 상황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태권도시범 단장을 역임했던 이규형단장의 인터뷰를 통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검토하였다.

II. 광복이후부터 1960년대 태권도의 시대적 상황과 주요 사건들

1. 광복과 기간도장의 태동

근대 태권도는 1945년을 전·후해서 당수 또는 공수라는 명칭으로 출현하였다. 광복을 맞이하여 일본에서 귀국한 몇몇 유학생들은 유학시절 일본에서 습득한 오키나와 도수무예를 취미로 또는 직업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근대식 도장을 개설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태

권도계에서는 당시 개설된 최초의 다섯 개 도장을 기간도장(基幹道場)이라고 부른다. 광복을 전후하여 가장 먼저 근대식 도장을 개관한 사람은 이원국으로서, 그는 1944년 9월 서울 서대문 근교에 청도관 당수도장을 개관하였다. 다음으로 황기가 1945년 11월 무덕관을 개관하였으며, 자신의 도수무예에 당수, 화수도, 수박도라는 명칭을 붙였다. 1946년 3월에는 전상섭이 조선연무관 권법부를 개관하여 공수도를 지도했으며, 1946년에는 윤병인이 중앙기독교청년회(YMCA) 권법부를 개관하여 권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1947년에는 황해도 개성에서 노병직이 송무관을 개관하여 당수도를 지도하기 시작했다[3]. 기간도장으로 불렸던 이들 다섯 개의 도장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여러 분관으로 해체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는 약 40개의 관들이 경쟁적으로 난립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분관으로는 창무관, 강덕원, 한무관, 정도관, 오도관, 국무관, 수무관, 창현관, 문무관, 흥무관 등이 있었다. 먼저 창무관은 이남석과 김순배가 의기투합해 만들었고, 강덕원은 홍정표와 박철희가 만들었는데 창무관과 강덕원은 모두 YMCA 권법부를 모체로 하는 도장이었다. 또한, 한무관은 조선연무관 출신인 이교윤이 개관하였고, 정도관은 청도관 출신의 이용우가 개관하였으며, 오도관은 육군 장성이었던 최홍희가 군인들을 중심으로 설립한 도장이다[4].

한편, 1945년 광복을 전후하여 다수의 의식 있는 사범들이 일제하에서 파생된 다양한 형태의 도수무예를 단일화시켜야겠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생각은 통합기구를 설립하려는 노력으로 구체화되었다. 1946년 7월 전상섭, 이원국, 윤병인, 노병직 등이 주축이 되어 통일협회 구성을 목적으로 두세 차례의 회합을 가졌으나 결국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논의를 통해 한국 무도의 표준형을 제정하고 지도방법을 통일하자는 견해에 대해 합의하게 된다[5]. 그런 와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지도자들은 실종되고, 수련생들도 뿔뿔이 흩어졌지만, 임시 수도 부산에서 노병직, 황기, 윤쾌병, 손덕성, 이남석, 이종우, 현종명, 조영주, 김인화 등이 주축이 되어 대한공수도협회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황기가 중앙심사위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회를 탈퇴하고 단독으로 대한당수도협회를 조직한다. 그는 자신이 만든 대한당수도협회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6].

1959년 9월 청도관과 오도관이 주축이 되어 대한태

권도협회를 창설한다[7]. 그러나 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 포고령 제6호를 발표하여 사회단체들의 해산을 명령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문교부(현 교육부)는 유사단체¹⁾의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 1961년 9월 14일 관 통합 창립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 16일 여러 관을 공식적으로 대표하게 될 대한태수도협회가 창립되었다. 대한태수도협회는 1962년 6월 25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태수도는 1963년 10월 24일 개최된 제44회 전국체육대회의 정식 종목이 되었다. 한편, 태권도란 명칭을 창안한 최홍희가 대한태수도협회장으로 취임한 얼마 후인 1965년 8월 5일 대한태수도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기간도장이 형성된 이후부터 대한태권도협회가 결성되기까지의 태권도계 상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이 시대의 태권도시범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지 알아보자.

당시 시범은 각 도장에서 실시된 연무대회나 승급심사 시 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시범의 주체는 각 도장의 사범들이었다. 시연자들은 시범을 통해 자신의 무력과 자신이 속한 도장의 우수성을 과시했다. 청도관은 1945년에 명동의 시공관(지금의 대한투자금융건물)에서 제1회 당수도 연무대회(練武大會)를 개최하였는데, 이 대회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근대식 무술대회였다. 이 연무대회는 시범을 통해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 보다는 수련자의 수련 정도를 선보이는 행사였다.

연무시범은 공수도 기술체계를 답습한 형과 권법의 기술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당시 청도관과 송무관은 서로 사이가 좋아 합동 연무시범을 개최하기도 했다. 1946년 노병직이 고향인 개성에 정식으로 송무관(松武館) 간관을 내걸자 이원국은 손덕성, 엄운규 등 제자들을 이끌고 개성을 방문하여 연무시범을 보였다[4]. 또한, 무덕관은 “1947년 7월 17일 교통부 부우회에서 연무회를 개최하였으며, 1948년 9월에 열린 무덕관 제1

1) “유사단체가 난립한 가운데 5.16혁명을 맞았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포고령 제6호를 내려 사회단체 재등록을 명(命)함으로써 문교부는 1961년 7월 21일자로 공문을 보내 대한수박도회, 대한태권도협회, 공수도창무관, 공수도송무관, 강덕원무도회, 한무관중앙공수도장의 대표들을 소집해 놓고 통합을 주선했으나 명칭문제로 결론이 나지 않자 읍서버로 참석했던 이종우가 중재에 나서 타협안을 내놓음으로써 ‘대한태수도협회’로 낙착을 보게 되었다”[5] p. 57).

회 승단심사와 1949년 10월 19일에 열린 제3회 화수도 연무대회에서 시범을 선보였는데, 이 두 행사 모두 교통부 부우회의 후원을 받아 교통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것이었다[8].

한편, 광복 직후 청도관에서 이원국으로부터 당수도를 직접 배웠던 남태희는 1950년 6월 18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최초로 당수도 시범을 선보였다[9]. 그의 품새 실력은 매우 탁월하여 관람자들을 압도하였다. 그는 장교에 임관하기 위해 동래에 있는 전시사관학교(육군종합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인 1950년 12월 25일 후보생을 위한 위문공연장 무대에 올라가 김석규와 함께 총검술을 포함하여 형(型), 대련, 격파 같은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그의 시범을 본 수백 명의 후보생과 교관들은 크게 감탄했다고 한다. 장교 임관 후 남태희는 유학시험에 합격하여 1952년 3월 2일 우종립과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그는 미국으로 향하던 배에서 약 200명의 유학생과 미군들 앞에서 태권도시범을 선보여 그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던 6개월 동안 틈틈이 태권도시범을 보여주었다고 한다[10].

YMCA권법부는 한국전쟁이 반발하기 직전인 1950년 6월 24일에 제3회 권법연무대회를 개최하였다[11]. 당시 박철희는 작두권 시범을 보였고, 박기태는 봉권 시범을 보였으며[6], 청도관의 손덕성, 엄운규, 이용우 등이 찬조시범을 보였다. 또 무덕관 수련생들은 1952년 5월 18일 육군본부에서 개최된 상이군인 및 유가족을 위한 운동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당수도를 시연하였다고 한다[7].

그리고 1956년 7월 29일 청도관이 주관하는 14회 연무대회가 조선일보의 후원을 받아 장충단 육군체육관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 이 대회에 참가했던 100여 명의 수련자들은 53가지의 기술을 시연했다고 한다[12]. YMCA권법부에서 윤병인으로부터 권법을 전수받았던 홍정표와 박철희는 1956년 9월 강덕원을 개관하였다. 강덕원은 1959년 11월 3일 광주학생 반일 의거 30주년을 기념해 ‘전국학생태권도특별연무대회’를 주최하였다. 박철희는 이 행사의 기술고문을 맡았고, 홍정표는 대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시연 내용은 약속대련과 격파, 평안, 진정, 공산군, 발색(소), 기마초단, 삼단, 발채, 완슈, 자은, 노패, 오십사보 등과 같은 가라테형, 그리고 YMCA권법부의 독자적 형인 기본형, 장권형, 팔기권형

등과 대련이었다. 또한, 1960년 11월 30일에는 무덕관 창립 15주년 기념 한·미·중 친선 당수도연무대회(韓·美·中 親善 唐手道演武大會)가 교통부 부우회관에서 개최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무덕관과 지도관이, 미국에서는 미8군 당수도부가, 중국에서는 재한 중국 국술부 팀이 참가하여 시범을 선보였다[7].

이상으로 살펴보았듯이 태권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5대 기간도장과 여기에서 파생된 분관들은 자신들의 도수무예에 당수도, 공수도, 화수도, 권법 등과 같은 다양한 명칭을 부여했으며 이러한 명칭만큼이나 그들의 무예 기법도 다양했던 것으로 보인다[7].

따라서 각 도장별 연무시범의 내용도 서로 달랐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태권도시범은 연무시범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연무(演武)는 무예를 닦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무시범은 수련자가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13]. 뿐만 아니라 당시의 태권도시범은 주로 기간도장을 비롯한 새로 생겨난 신흥 도장에서 시연되었다. 무엇보다 태권도시범의 궁극적 목적은 각 관별로 관세를 넓히는 데 있었으며, 주로 승급심사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간혹 연무대회가 독립적으로 개최되는 때도 있었다. 그리고 각 관의 특성에 따라 각기 상이한 내용과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태권도시범은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해외로 빠르게 보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다.

2. 한국군 베트남전 파병

60만 강병책으로 전 군에 보급되기 시작한 태권도는 군대 내에만 머물지 않고 군 주변의 민간인과 학생들, 그리고 주한 외국인들에게도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태권도가 민간에 보급되어 국민생활체육으로 정착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은 군인들이었다. 군인들은 또한, 태권도의 해외 보급에도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1960년을 전·후하여 구사 원조의 한 방편으로 태권도교관단 7백 명이 10년 4개월에 걸쳐 베트남 전 지역에 배치되었으며, 이들은 베트남의 군인, 경찰관, 학생, 민간인, 그리고 베트남 주재 외국인에게 태권도를 지도하였다[10].

태권도가 국군 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때는 1953년이다. 당시 제주도에 보병 제29사단이 창설되었는데, 이

제29사단은 ‘주먹 사단’ 또는 ‘이크 사단’으로 알려졌으며, 나중에 ‘태권도 사단’으로 유명해졌다[9]. 또한, 국군 최초의 군대 무도 조직은 1952년 10월에 미국 포트베닝 보병학교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제주도 제1훈련소에서 결성한 ‘화랑 무도관’이며, 이 단체의 수석 사범은 미국에서 귀국한 남태희였고, 부 사범은 같은 청도관 출신의 고재천이었다.²⁾ 전시에 탄생한 ‘화랑 무도관’은 초창기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제주도에 있던 보병 제29사단 최홍희 사단장과 화랑 무도관의 남태희 중위가 만나면서 이 단체는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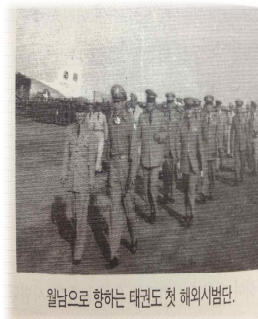
최홍희와 남태희는 1954년 강원도 용대리에 국군 사상 처음으로 ‘오도관(吾道館)’이라는 군대내 도장을 창설하게 된다. 오도관의 초대 관장은 최홍희였지만, 오래 지않아 사범을 맡고 있던 남태희가 관장직을 물려받게 된다. 오도관에는 우종립, 고재천, 김석규, 백준기, 광근식, 김봉식, 한차교 같은 실력자들이 있었다. 그러던 중 6.25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계기로 군대 도장인 오도관과 최홍희가 태권도의 중심으로 부각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군인과 군대의 힘이 강해졌고, 군대 내부에서 태권도가 빠르게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태권도계에서 최홍희와 군대의 위세는 휴전이 체결된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반공의식이 강화되면서 더욱 강성해졌다[7].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대 도장 오도관이 만들어졌으며, 남태희가 훈련시킨 오도관 출신자들이 군대에서 최초로 1군 사령관인 백선엽 장군 앞에서 당수도 시범을 선보였다. 그리고 얼마 후인 1954년 9월 속초에서 제1군단 창립 기념식이 개최되었는데 이 기념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오도관 1기생과 2기생 50여명이 30분 동안 태권도시범을 보였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승만 대통령은 줄곧 시범을 서서 관람하였다고 한다. 특히 그는 남태희가 기왓장 13장을 겹쳐 놓고 일격에 완파하는 것을 보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뼉을 쳤고, 시범이 끝나자 최홍희를 돌아보면서 “저게 예로부터 전해 오던 우리 태권이야, 태권! 앞으로 전군에 보급시켜야겠어!”라고 말했다고 한다[7]. 태권이라는 우리의 전통 무예를 알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최홍희는 태권도라는 이름을 고안하게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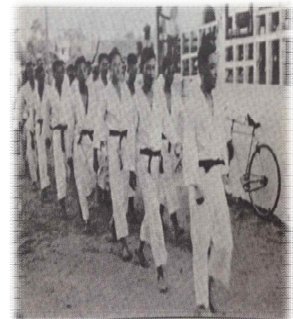
2) 고재천은 후일 제1훈련소에서 광주 교청으로 발령을 받아 광주에서 청도관의 지부인 청룡관을 열었다. 그는 대령에서 예편한 후, 1970년대 초 한국에 프로 태권도가 시도됐을 때 이를 주도했다[7].

다.

1958년 중순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베트남의 고딘디엠 대통령(Ngo Dinh Diem, 1901~1963)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당시 전방에 있는 6군단 제29사단 장병의 태권도 연무시범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래서 한국군이 강하군!”이라며 감탄하였다고 한다.³⁾ 그는 귀국한 이후에도 태권도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태권도야말로 군인들에게 필요한 정신교육과 호신술을 체득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했으며, 주 베트남한국대사관을 통해 태권도시범단을 초청하였다. 1959년 2월 베트남 국방성의 초청으로 국군태권도시범단은 2주간 베트남에 파견되었다. 해외 원정에 앞서 국군태권도시범단은 약 2주간 육군본부 대강당에서 합동훈련을 시행하였다[15]. 군인으로 구성된 시범단원들은 짧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로 인해 매우 용맹스러워보였다고 하며, 그들의 통일된 장면은 외국인들에게는 절도 있고 인상적으로 비춰졌다고 한다. <그림 1>은 태권도시범단이 베트남으로 향하는 한국 최초의 ‘국군태권도시범단’의 해외파견 장면이다.



출처: [14]
 그림 1. 한국 최초의 ‘국군태권도시범단’ 해외파견 장면.
 Figure 1. Korea's first Korean national forces Taekwondo team sent abroad.



출처: [16]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최홍희는 말했다.

시범단의 규모와 파견 날짜가 결정됨에 따라 나는 즉시 공군본부에 가서 비행기를 곁집해 인원 선발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제학 국회 부의장은 국방부에서 손덕성을 포함시키라고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나 내가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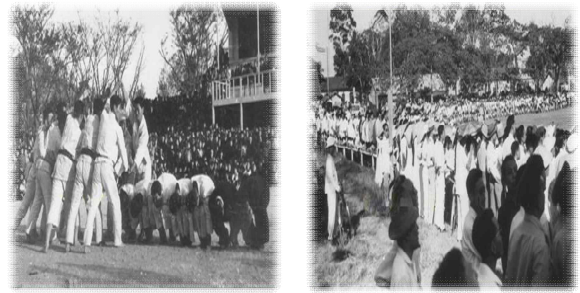
3) “훗날 들었지만 곁에서 이 광경을 본 주월공 대사 최덕신 형은 ‘웁지, 국군태권도시범단을 베트남에 유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한다”[14] p. 403.

호히 거부하는 바람에 국방부는 한동안 난처한 입장에 있었으나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역강부약(抑強扶弱))」는 것을 생활신조로 하는 나로서는 만약 국방부가 군대만 파견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민간인 손터 성이를 끼워 넣을 경우엔 나는 가지 않겠다고 고집한 결과 이부의장도 후퇴 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각 군 또는 관으로부터 여러 잡음이 들렸지만 별로 문제시하지 않고 내 뜻대로 선발하여 약 2주간 육군본부 대강당에 모아 놓고 합동훈련을 시켰다[14] p. 404.

국군태권도시범단은 1959년 3월까지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방문하였으며, 이 방문은 최초의 태권도 해외 순회 시범으로 기록된다. 시범단은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을 순회하면서 태권도시범을 선보였으며, 특히 베트남에서의 태권도시범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때 고딘디엠 대통령은 시범 기간을 1주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본래 2주 계획으로 파견된 시범단은 베트남에 1주일 더 머물면서 3주 동안 12차례의 시범을 선보였다. 시범을 구경하러 온 관중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장애물을 넘어 뛰어 차는 이단 옆차기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7]. 국군태권도시범단은 매력적인 태권도시범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우방관계를 강화시켜주었다.

또한, 이것은 한국 태권도의 역사에서 최초의 해외 태권도시범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국군태권도시범단은 대만에서도 두 차례 시범을 선보였는데, 군인 특유의 절도와 패기로 무장한 시범단원들의 위력적인 시범을 목격한 관중은 시범이 끝난 후 일제히 기립하여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 등을 외치며 환호하였다고 한다[6]. <그림 2>는 국군태권도시범단의 위력적인 격파시범을 관람하기 위해 모여든 관중의 장면이다.

이렇게 국군태권도시범단은 민간외교관으로서 타국에 한국을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태권도의 세계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해외시범을 계기로 대한태수도협회는 태권도의 해외보급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태권도 친선사찰단’이 결성되었다.



출처: [17]

그림 2. ‘국군태권도시범단’의 시범 및 관람 장면.
 Figure 2. Exhibition and viewing scene of the Armed Forces Taekwondo Demonstration Board.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3명의 태권도사절단 순회계획을 의결하고, ‘태권도 친선사찰단’을 결성하여 1965년 3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60일 동안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세네갈, 다호메이, 아이보리코스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레바논, 이란,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아랍공화국 등 18개국에 파견하였다. ‘태권도 친선사찰단’은 여러 국가를 순방하면서 다양한 시범활동을 펼쳐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18].

또한, 같은 해 9월에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태권도 친선사찰단’, 일명 ‘구아 사절단’은 최홍희를 단장으로 하고, 권재화, 박종수, 김중근, 한차교 등 4명을 단원으로 하여 해외 순방길에 나섰다. ‘태권도 친선사찰단’은 이탈리아, 터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5개국을 순회하면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태권도시범을 선보였다. 시범단은 가는 곳마다 큰 인기를 끌었으며, 코리아 태권도 선풍을 일으켰다. 시범단원 중 한차교, 박종수는 뛰어난 발차기 명수였고, 김창근, 권재화는 뛰어난 손기술의 명수였는데 주먹 지르기, 손끝, 손날 격파의 고수로 알려지게 되었다[6].

‘국기태권도 친선사찰단’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말레이시아에서 1965년부터 1967년까지 2년 동안 한국인 사범이 1,600여 명에게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김복만은 말레이시아의 수상 라만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19]. 이렇듯 ‘국기태권도 친선사찰단’은 유럽 및 동남아 지역에 태권도의 홍보와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형제국가로서 동맹을 맺었던 대만은 태권도를 군대에 도입하여 국방력 향상을 꾀하였고, 태권도 강대

국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국기태권도 친선사찰단’은 1967년 1월 18일에 홍성인 중령을 단장으로 하고 육군 소령 노효영과 정영휘, 공군대위 이영환, 해병대위 강석정 등 5명을 단원으로 하여 처음으로 대만에서 시범을 보이게 된다. 1967년 6월 15일에는 대만의 총통 장개석이 까오슝(高雄)시에 위치한 해병학교를 방문하여 태권도시범을 관람하였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10]. 그리고 1967년 ‘태권도 친선사찰단’은 태국 주재 미군의 태권도 지도를 위해 태국을 방문하였다. 최승하를 단장으로, 7명으로 이루어진 시범단은 1년간 태국에서 태권도를 지도하였고, 이를 통해 태국에 태권도를 전파할 수 있었다[20].

태권도시범단은 베트남을 필두로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 파견되어 군사외교 강화는 물론이고 국가간의 관계 개선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에도 파견되어 태권도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한국을 알리는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3. 국제태권도연맹(ITF) 창설

1960년대 태권도의 세계화에 힘썼던 국제태권도연맹(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⁴⁾가 창설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자. 전군에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최홍희는 1959년 3월 중순 국군태권도시범단의 단장을 맡아 우종립과 한차교를 포함하여 19명으로 구성된 국군태권도시범단을 이끌고 베트남, 대만을 방문하여 해외에서 최초로 태권도시범을 선보였다. 이를 계기로 태권도시범단의 해외파견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1960년대에 베트남에 파견된 태권도교관단의 태권도시범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다른 나라의 군인들에게 태권도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이를 계기로 태권도는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1962년 최홍희는 신군부정권에 의해 예편하여 말레이시아의 초대 한국 대사로 부임했는데 역시 대사의 직책보다는 오히려 태권도의 전도사도로서 정열을 기울임으로 동남아 전역에 태권도 전파의 완전한 기틀을 마련”[16] 하였다. 최홍희는 태권도가 국제화됨에 따라 여러 나라에 흩어진 지도자들과 수련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게 되

었다.

최홍희는 말레이시아 대사로 있으면서 1963년에는 말레이시아에 태권도 협회의 창설을 주도하였고, 1964년 가을에는 “태권도를 더욱 발전시켜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나의 정신과 기술을 후세에 남기고야 말겠다!”고 결심하고 태권도의 기술 개발에 온 힘을 쏟았다. 그는 처음부터 태권도와 가라테를 확연히 구분할 의도에서 천지 틀과 단군 틀을 만들어 가라테형인 태극형을 대체하였고, 기존에 있던 화랑, 충무, 계백, 을지 틀을 합해 모두 20개의 틀을 완성시켰다. 그는 창현류 24개 틀 중 나머지 4개 틀을 1966년에 개발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말레이시아에서 자신의 태권도기술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21].

최홍희는 오랜 연구 끝에 태권도 본연의 창현류 틀을 완성하였으며, 베트남에서 백준기 단장에게 지시하여 이를 전군에 보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년 2월에는 싱가포르에 태권도협회를 조직하도록 했고, 브루나이를 포함한 동부 말레이시아에도 태권도를 보급하도록 하여 브루나이에 태권도협회를 조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해 말 최홍희는 귀국하여 다시 대한태권도협회장 직책을 맡아 태권도계를 정리하는 정화사업에 착수한다[16].

1965년에는 최홍희를 단장으로 박종수, 한차교, 김중근, 권재화 등 4명의 ‘태권도 친선사찰단’을 만들어 유럽과 아프리카를 순회하면서 시범을 선보였고, 국가마다 순회하면서 태권도협회를 조직하고 이어 ITF를 창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 후 최홍희는 해외 시범을 마치고 돌아온 즉시 국제기구 창설을 서두르게 되지만, 이에 대한 지식도 빈약한데다 주위에 의논할만한 사람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그는 기구의 명칭, 편제, 규약, 깃발, 유단자 배지, 인사 등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여 1966년 3월 22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탈리아, 서독, 미국, 터키 등 아홉 개국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조선포텔에서 한국 최초의 태권도 국제기구인 ITF가 창설되고, 최홍희가 초대 총재에 취임한다. 이에 대해 최홍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내가 앞날 태권도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그것을 더욱 잘 육성하여 유기적으로 지휘할 목적으로 이에 국제태권도연맹을 창설하였으니 이것이 우리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인 국제기구의 본부이다[21] p. 90.

4) 이하 ITF로 표기 함.

1968년 홍콩에서 제1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개최된 이후 태권도의 해외 보급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다. ITF는 무도성에 기반을 둔 기술과 동작을 통해 태권도를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엄청난 파괴력과 위력적인 격파시범이 힘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여러 나라에서 선보여졌다.

태권도의 세계화 전략으로 창설된 ITF는 태권도의 명칭 통합과 태권도 역사적 전통성 마련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었다. 당시 태권도의 보급방법은 시범을 통한 홍보였으며, 이승만 정권 때부터 대한민국 창립 군(軍) 구성원이었던 최홍희⁵⁾는 군대에서부터 준비한 조직과 권세를 활용하여 ITF를 창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개발한 창현류 24개 틀은 민족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 명칭은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 이름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그것의 보급은 민족문화의 보급을 의미하게 되었다. 최홍희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이라는 태권도 정신을 창안하여 기술보다 무도 정신을 강조하였으며, ‘국기 태권도’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22]. 그뿐 아니라 무엇보다 태권도의 발전과정에서 시범단을 구성하여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선보인 태권도시범은 해외에 태권도를 홍보하고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III. 광복이후부터 1960년대 태권도시범의 형식과 내용

1. 태권도시범의 형식

당시의 태권도시범은 1965년 대한태수도협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로 공식 명칭이 변경될 때까지 당수도, 공수도, 화수도, 수박도, 태수도 시범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태권도시범단의 주 구성은 “주로 군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베트남 전 파병에 따른 국군태권도교관단의 파견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조직적으로

5) 그러나 최홍희는 정치적인 이유로 캐나다로 망명하였지만, 그 곳에서도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 가라테의 기술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국제태권도연맹의 태권도가 ‘진짜 태권도’라고 주장하였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범이 필요할 때마다 각 관(館)에서 시범에 능력이 있는 한두 사람을 추천받아 시범단을 구성하여 그때그때 시범을 하였고”[23], 최홍희를 주축으로 군인이 대다수였으며, 간혹 민간인 사범들도 선발되어 파견되었다. 당시 시범이 이루어졌던 장소는 각 관의 도장이나 연무대회가 열리는 강당 또는 노천(운동장)이었다.

또한, 이 시기 품새 형식은 각 관의 지도자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규형은 “그때만 해도 ... 팔괘 품새가 시작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형이 있었지”[24]라고 말했다. 당시에 나타난 형들의 종류는 광복 이후 1950년대는 주로 각 관의 무예형태에 따라 청도관은 가라테형인 태극, 평안, 철기, 발새 등의 품새를 시연했으며, YMCA권법부에서는 단권(短拳), 장권(長拳), 토조산과 팔기권, 그리고 태극권 형(型) 등과 봉술, 도술 등을 시연하였고. 무덕관에서는 가라테의 형과 함께 담퇴, 소림장권, 태극권 등이 주로 행하여지면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서 1960년대에는 자신의 호를 따서 만든 최홍의 창현류, 평안형, 철기류, 이교윤의 한무관형과 여러 지도자가 모여 공동으로 만든 대한태권도협회 제정 품새인 팔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품새가 선보여지게 된다. 또한, 시범은 개인의 특기에 의존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만 해도 ITF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최홍희가 만든 창현류가 주로 시범에서 이뤄지고 해외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품새들은 국내의 민간도장에서만 수련되었다.

그리고 태권도시범 용어에 있어서도 1960년대까지는 일본 가라테에서 사용하는 기술용어의 한자어가 그대로 음역(音譯)되어 사용되었다. 예컨대 정권, 관수, 수도, 족도, 기마자세, 진굴세, 후굴세, 상단, 하단, 대련, 형 등과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였다[25]. 그리고 태권도시범에서 주로 사용된 소품들은 기와, 벽돌, 송판(2, 3센티), 총과 검, 얼음 등이다.

2. 태권도시범의 내용

당시 태권도시범의 기술은 태권도를 홍보하기 위해 위력적인 장면을 많이 선보였다. 그래서 태권도시범의 내용은 무도성을 강조한 실전성 위주의 기본동작, 품새, 호신술, 겨루기 등의 단일 위력기술들로 이뤄졌다. 이러한 상황은 1965년 ‘태권도 친선사찰단’이 선보인 내용에

대한 일화와 인상 깊었던 일들을 최홍희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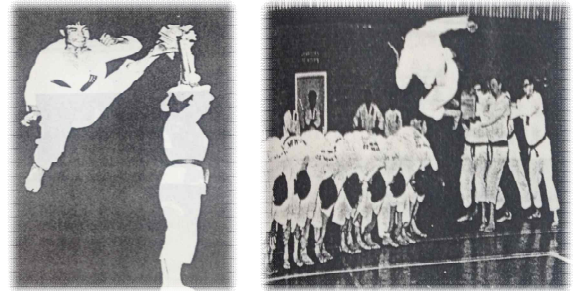
<이태리 로마에서>

예술의 나라로 알려진 이태리에서의 시범은 군부 주관 하에 실시되었다. 장소는 독재자 무솔리니가 건설한 신로마에 있는 올림픽 농구경기장이었다. ... 이때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다음 두 가지 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나는 한차교 선수가 6척이 넘는 군인 두 사람의 어깨를 뛰어 넘으면서 송판 2매를 차서 깨뜨리자 관중은 일제히 “와우”하고 탄성을 올리면서도 혹시 매직(눈속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져 똑같은 장면의 반복을 요구해 왔다. ... 그리하여 한차교 선수가 다시 나와서 사람들을 그대로 세워놓고 다시 한 번 뛰어 넘어 신나게 깨뜨림으로써 눈속임이 아님을 증명해주어 관중을 열광케 했다. 이것이 내가 수많은 시범을 지휘 하던 중 똑같은 장면의 반복 시범과 육성대신 박수로 앙코르를 받은 첫 케이스였다. ... 다음 하나는 박종수 선수가 약 2cm씩 되는 송판 7매를 차서 깨뜨렸을 때이다. 이때 보는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며 실감을 느꼈지만 하도 세계 찾기 때문에 송판을 붙잡고 있던 군인들의 손바닥이 터지고 손목이 상하는 등 한동안 야단법석을 치렀다[21] p. 71-87.

태권도시범기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최홍희는 자신의 저서 『태권도교서』에서 1965년 ‘국기 태권도 친선사찰단’이 구라과, 아프리카, 중동 및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태권도기술을 선보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태권도시범프로그램에 소개된 위력격파 기술에는 앞 주먹으로 기와 15매 격파, 손날로 벽돌 1매 격파, 손끝으로 2센티 송판 1매 격파, 등주먹으로 3센티 송판 2매 격파, 지르며 차기로 기와 4매 격파, 옆차기로 3센티 송판 3매 격파, 돌려차기와 반대돌려차기로 3센티 송판 3매 격파 기술 등이 있었다. 이러한 위력격파는 개인이 종합적인 기술들을 이용하여 격파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1968년 베트남 백마부대 태권도시범단으로 활약한 김정광은 이를 종합격파라고 불렀다[26].

또한, 도약격파로는 뛰며 높이 차기로 기와 1매 격파, 어깨 위를 뛰어넘으며 발 칼로 기와 1매 격파, 뛰며 앞차기와 돌려차기로 기와 2매 격파, 뛰어 돌며 차기로 3센티 송판 3매 격파, 8명을 뛰어넘으며 3센티 송판 2매 격파, 뛰며 비틀어 차기로 머리 위에 있는 기와 1매 격파, 뛰며 돌려차기로 머리 위에 있는 기와 1매 격파,

오토바이를 뛰어넘으며 기와 1매 격파 등의 격파기술 등이 있었다. 대련에는 약속대련, 자유대련, 족기대련, 1대2의 자유대련 등이 있었다[27]. <그림 3>은 1960년대 선보여졌던 도약격파의 한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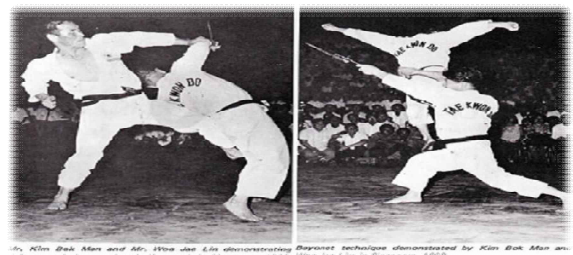


출처: [27]

그림 3. 1960년대 태권도시범 도약격파 장면.
 Figure 3. 1960's Taekwondo demonstration jump breaking scene.

한편, 1968년 11월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에서 태권도 보급차원에서 펼쳐진 태권도시범에서 기존의 도약격파와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도약격파 기술인 가위차기가 시도되었다.

그리고 호신술의 내용에는 잡혔을 때 푸는 방법, 던지기, 대 총검 및 대 단도 등이 있다. 특히 당시의 호신술 시범은 군사무술의 형태를 띤 맨몸 호신술, 총검 호신술, 봉 호신술 등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태권도가 실전 상황에서 적을 격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림 4>는 대련을 통한 태권도의 실전성을 입증하는 호신술 시범 장면이다.



출처: [17]

그림 4. 1960년대 호신술 시범 장면.
 Figure 4. 1960's Taekwondo demonstration of the self-defense scene.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광복이후부터 1960년대의 태권도시범은 태권도의 무도적 성격을 과시하기 위한

위력적 기술들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1965년 '국기태권도 친선사찰단'의 시범프로그램에서 입증해 주고 있다.

IV. 결론

1950년대부터 세계인에게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태권도시범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발전해왔는지 추적하는 일은 태권도시범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하는지를 구상하는데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태권도시범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광복이후부터 1960년대라는 공간 속에서 태권도시범과 관련된 상황 및 주요사건들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이 시기의 태권도시범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태권도시범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회상황과 사건으로는 먼저, 광복과 기관도장(청도관, 무덕관, YMCA권법부, 조선연무관, 송무관)의 태동과 관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대한태권도협회가 창립되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군 월남전 파병으로 인하여 태권도 역사에서 최초로 '국군태권도시범단'이 1959년에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을 순회하며 태권도시범을 선보였다. 그리고 당시 주도적 인물이었던 최홍회는 1966년 3월 22일에 태권도국제기구인 국제태권도연맹(ITF)을 창설하였고,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해 창현류 품새를 만들게 된다.

둘째, 이 시기 태권도시범은 형식면에서 연무시범이라고 불렸으며, 각 도장에서 승급 심사나 연무대회가 개최될 때 관의 홍보 및 개인 수련기량 연마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되어 점차 해외로 태권도를 홍보하면서 민관외교관으로서 한국을 알리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태권도시범의 주 구성원은 군인이 대다수로 간혹 민간도장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추천 받아 시범을 했다. 품새에는 1950년대 각 도장의 무예형태나 지도자에 따라 가라테형, 태극형 등으로 각각 달랐으나, 1960년대로 오면서 여러 지도자가 모여 공동으로 만든 대한태권도협회 제정 품새인 팔괘가 만들어졌지만, ITF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최홍회가 만든 창현류 틀

이 주로 시범에서 이뤄지고 해외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태권도시범의 주요 내용은 태권도를 홍보하기 위해 위력적인 태권도기본 기술을 바탕으로 손·발 위력격파와 단순 도약격파(뛰며 높이차기와 돌려차기, 어깨 넘어 옆차기, 뛰어 돌며차기, 가위차기 등), 대련(약속대련, 자유대련, 족기대련, 1대2 자유대련 등), 호신술(맨몸호신술, 총검호신술, 봉호신술 등)은 군사무술의 성격을 띠면서 태권도가 실전상황에서 적을 격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루어 졌다.

References

- [1] The Advisory Committee on State Affairs(2017). <https://www.slideshare.net/pourmarx/5-78032440>.
- [2] C.M. Na. "A Study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Taekwondo Demonstra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58:p 143-156, 2014.
- [3] Y.K. Ahn.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er of Taekwondo」, Korea Taekwondo Association, Seoul, 2000.
- [4] S.W. Seo. 「Taekwondo cheon(傳)」, Tkdsanga, Seoul. 2012.
- [5] Kukkiwon. 「World Taekwondo Kukkiwon 25-year history」, Kukkiwon, Seoul, 1997.
- [6] W.S. Kan, K.M. Lee. 「Modern history of Taekwondo」, History of Bogyeong Culture, Seoul, 1999.
- [7] I.W. Heo. 「History of taekwondo centers focused on coffins」, Ksi, Gyeonggi-do, 2008.
- [8] K. Hwang. 「Subakdo daegam」, Samkwang Publishing Co, Seoul, 1970.
- [9] H.S. Lee. 「Conquer the American Continent of Korean martial arts」, Ksi, Gyeonggi-do, 2007.
- [10] H.S. Yang. "The Transition of Taekwondo's Globalization Since the Independence of Korea(1945-2005)". Doctorate thesis,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2006.
- [11] Mooks. <http://www.mookas.com> (2010. 01. 25).
- [12] Chosun Ilbo.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read_pdf.jsp?PDF=19560731203&Y=1956&M=07. (1956. 07. 31).
- [13] C.M. Na. "History and Social Understanding of Taekwondo Pilot Concepts",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p.134, 2012.
- [14] H.H. Choi. 「Taekwondo and I-1 Land of

- Passion My country」, Humans, Seoul. 1997.
- [15] W.S. Kan, K.M. Lee. 「History of Taekwondo」, Tkdsanga, Seoul. 2002.
- [16] ITF Taekwondo Association. 「ITF Taekwondo Guidebook」, Gwangrim Book House, Seoul. 2008.
- [17] K.K. Choi. "The History of Taekwondo Demonst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aekwondo's Globalization Process", Doctorate thesis,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2011.
- [18] Chosun Ilbo.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read_pdf.jsp?PDF=19650217003&Y=1965&M=02. (1965. 02. 17).
- [19] Chosun Ilbo.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read_pdf.jsp?PDF=19650415007&Y=1965&M=04. (1965. 04. 15).
- [20] Chosun Ilbo.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read_pdf.jsp?PDF=19670214008&Y=1967&M=02. (1967. 02. 14).
- [21] H.H. Choi. 「Taekwondo and I - 2 dream of asylum, underground seal.」, Humans, Seoul. 2000.
- [22] D.K. Kim, G.H. Kim, Y.K. Kim. "A Comparative Study of Choi Hong Hi's and Kim Un Yong's Taekwondo Philosophy and Its Globalization Strategies", Korean Philosophic Society for Sport & Dance, 12(2): 364-383. 2004.
- [23] J. Kwon. "A look through the changing procedure in Taekwondo Demonstration ", Korean Alliance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41(3): 159-167 2002.
- [24] K.H. Lee. Interview. 2013. 02. 25.
- [25] H.S. Song, Y.S. Bae, K.H. Lee. 「What is taekwondo?」, Imin Publishing Co, Daegu, 2005.
- [26] K.T. Association. http://webzine.koreataekwondo.org/client/page.asp?w_idx=2687. (1974).
- [27] H.H. Choi. 「The message of the Taekwondo regime」, Jung Yeon-sa, Seoul. 1973.

※ 본 연구는 나채만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 하였음